

## 번역 有感

曹 大 京

(서울大 心理學科)

Webster 辭典에 번역의 뜻으로, 번역은 “...is an art that involves the re-creation of a work in another language for readers with a different background—Malcolm Cowley...”라는 句節이 있다.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라는 말도 있고 예술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비하여 번역 활동에 주어지는 평가나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 대학 사회에서의 현실인 것으로 이해된다.

예전에 역관들에 주어진 값이 높지 않았듯이 그러한지 또는 남의 말과 글을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으로 생각되어 그러한지 모르나 번역은 연구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전공 영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원서의 내용을 재편집해서 옮긴 ‘저서’는 연구 업적으로 간주되고—이 경우 독자의 구매 능력에 부합되도록 매수에 제한이 가해져 내용의 충실성이 저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음에도—충실하게 옮긴 역서는 그러하지 못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이 주는 폐단의 한 가지에 전공 서적이 전공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의하여 번역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내용에 관한 조예가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옮겨진 글이 原本의 내용을 충실히 살리기란 쉽지 않다. 번역은 어학의 재

능과는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까닭이다.

年前에 어떤 번역물에서 원서의 “...workers of the field...”가 “...운동장의 노동자들...”로 번역된 것을 본 일이 있다. 문맥으로 보아 “...그 영역의 종사자들...”이 옳은 내용이었다. 단 어 하나 하나가 지니는 여러 含蓋意들로부터 저자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이것을 원저자가 표현하려는 뜻에 맞추어 문장으로 엮고 이 문장이 또한 독자에게 거슬리지 않게 이해되는 수준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번역하는 사람은 원저자의 자리에 서서 원저자가 전혀 머리 속에 두지 않았던 독자를 위해서 글을 옮겨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번역이라는 작업은 혹시 오역이 되는 일은 없을까 세심한 주의를 꾸준히 기울여야 하는 지루한 일이고, 이러한 태도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어감이 바뀌고 이것이 우리 말로 옮겨지면서 또 오역될 때 독자가 얻는 지식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 Der manifeste Traum이 manifest dream으로 번역되고 Der latente Trauminhalt가 latent dream content로 번역되어 있을 때 영어에만 의존하고 독일어의 원문을 보지 않거나 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각기 “顯在夢”과 “潛在夢 內容”으로 옮겨질 수 있다. 독자는

현재공과 잠재공이라는 두 가지의 꿈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어를 보면 “잠재적인 꿈의 내용”이지 “잠재공 내용”은 아니다.

나는 번역이라는 작업이 지니는 속성으로 미루어 전공과 관련된 두 권의 서적 번역의 노고를 적어도 우리 글로 쓴 한 권의 저서의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어 주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지닌다.

마침 한 학생이 찾아왔다.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번 학기에 여섯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고 한다. 여섯 과목 중에서 네 과목은 교재로 원서들을 사용하고 있고 한 과목은 번역된 교재, 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편집한 우리 말로 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원서 교재들의 내용이 쇄신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어 원서에 의존하는 것이 편리한 점은 적지 않겠으나 원서에 대한 의존은 생각해 볼 문제로 여겨진다.

나는 이와 같은 현상에 있는 전공 영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생들은 사전을 뒤지는 데 소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전을 뒤지면서 소화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되고 자신의 것이 될까? 미국의 학생이 영어로 된 글을 한 번 읽고 완전하게 이해할 때 우리 학생들은 몇 번 읽어야만 그네들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의 대학생의 한 시간의 독서량과 이해의 깊이는 우리네 대학생이 영어로 된 원서를 한 시간 읽을 때의 그것과 얼마나 差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은 몇 가지의 외국어를 별로 큰 불편 없이 구사한다. 물론 그 나라의 원서들도 책에 따라서는 사전을 거의 안 뒤지고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서를 읽을 때에는 어떤 장막과도 같은 것이 있음을 느끼며 우리 글로 읽을 때보다 실감이 덜함을 느낀다. 원서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 있어 이러한 느낌은 보다 강하리라 짐작된다. 학생들에게 물으면 원서를 읽을 때 구름을 잡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 구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진한 애를 쓴다.

번역이라는 작업에 별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채산이 맞는 내용을 지닌 원서들이나 번역이 되고, 그것도 때로 전공 또는 해당 영역에 거의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말로 옮겨지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책들은 원서를 보아야만 되는 상황이 우리들의 지식의 구조에 주는 영향이나 학생들의 의식의 수평선의 확장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원서에 투입하는 시간과 정열은 학생으로 하여금 소위 Secondary Literature에 눈을 돌릴 겨를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는 대학에서의 기초과정을 제외하고 전공 과목에 몰두할 수 있는 3년간을 학생으로 하여금 극히 제한된 원서 몇 권들에 집중하게 하며 또한 이의 결과는 지식의 편향이나 특정 영역에서의 흑백이론적인 견해의 조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창조적인 思考라는 것이 Preparation, Incubation, Illumination, Verification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개념도 그가 고등물리학과 고등수학에 관한 Preparation이 없었다면 결코 조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창적인 전자 제품의 개발도 전자 계통의 지식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한 반면, 이 분야의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즉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독창적인 발명의 가능성은 커진다.

생동하는 정신력으로 충만된 젊은 학생들로 꼭 찬, 아는 것이 힘이라는 가치관에 충실해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의는 불문가지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즉 문교부에 번역국을 신설하여 착수하든 또는 대학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든간에 필수불가결의 성질을 지니는 기본적인 교재들이면서도 원

서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교재의 조직적·체계적·영속적인 그리고 큰 규모의 번역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해당 전공 분야의 어학에 능통한 교수들을 1년간씩 휴직케 하여 교대로 동원하여 전적으로 번역에 전념케 하고 번역된 서적은 연구 업적으로 간주한다. 물론 해당 교수에게는 특별한 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성격상 원서에 의존하는 과목들이 많고 이 원서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교육하는 것이 학생의 해당 영역에 관한 기초 실력을 보다 빠르게, 보다 충실하게 배양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30개 있다고 가정한다. 필요성의 우선 순위에 따라 1차 연도에는 각 전공 영역에서 다섯 권의 원서를 번역토록 하면 30개 전공 영역에 관한 150종의 원서가 번역된다. 교수 1인이 1년에 조석으로 번역에 전력을 경주하는 경우, 2종의 번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75명의 교수가 동원된다. 1년 내내 번역에 종사한다는 일의 어려움은 번역을 해본 사람은 안다. 따라

서 그 노고에 보답을 하는 것으로 하여 1개월에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던 번역에 드는 경비는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 원고를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인쇄하여 첨가로 학생에게 보급한다. 특정의 전공 영역을 30개라고 하였으나 실은 이보다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도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각 영역의 필요한 꺾번역 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미 번역된 원서도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몇 해 후에는 수많은 전공 영역에 관한 수천 권의 서적들이 우리 말로 정리되어 학생들의 전공에 관한 기초 실력이 보다 넓고 튼튼하게 배양된다.

기초과학이나 학문 일반 또는 연구의 신장에 필요한 기타의 요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방법도 일진월보하는 선진국의 학문 추세에 질과 양의 양면에서 좀더 빠르게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번역有感이다. \*